

양액조성 및 묘소질에 따른 감자 소괴경 생산

이운수¹⁾, 이기철²⁾, 박철호³⁾

¹⁾농심대관령감자연구소, ²⁾춘천교육대학교, ³⁾강원대학교 생명공학부

Effect of culture media and seedling quality on the production of mini-tuber in Potato

Un-Soo Lee¹⁾, Ki-Cheol Lee²⁾, Cheol-Ho Park³⁾

¹⁾Nongshim Daekwanryong Potato Research Institute

²⁾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cheon, 200-703 Korea

³⁾Division of Bio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지상부 생육상태는 일본 원시 표준액에 비해 농심 표준액에서 더 좋았으며, T/R 율은 일본 원시 표준액과 농심 표준액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또한 괴경형성시기는 Atlantic 품종이 일본 원시 표준액에 비해 농심 표준액에서 8일 늦었으며, 다른 품종들과 유의차를 보였다.

주당 괴경중량은 품종별, 양액조성별 유의차를 보였으며 Norchip 품종은 농심 표준액에서 주당 590g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Gemchip 품종은 농심 표준액에 비해 일본 원시 표준액에서 2배 많았다.

지상부 생육상태는 묘소질에 의한 유의차는 없었으나, 발근묘와 무발근묘 사이에는 유의차가 있었다. 또한 T/R 율은 3종류의 묘소질에 의한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괴경형성시기는 묘소질에 의한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괴경형성시기는 묘소질에 의한 유의차는 없었으나, 품종에 의한 유의차는 있었으며 주당 괴경중량은 품종별, 묘소질별 유의차가 있었다. 특히, Superior 품종은 기내소괴경 발근묘가 무발근묘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Norchip 품종은 모든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다.

주당 괴경수는 묘소질별 유의차가 없었으며, 품종간에는 유의차가 있었다. 또한 Snowden은 기내소괴경 발근묘와 무발근묘에서 각각 36개와 34개로 가장 많았으며 Superior와 Atlantic은 기내식물 발근묘에서 주당 27개로 가장 많았다.